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AI 고평가 우려, 고용 시장 불안 등으로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6일(목) 미 증시는 AI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미국 챌린저 보고서의 감원 규모 급증, 오픈 AI발 정부 보증 이슈 등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결과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다우 -0.84%, S&P500 -1.12%, 나스닥 -1.90%)

미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악재에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 이 날 발표된 10월 미국 감원 규모(챌린저 보고서)는 15.3만 명으로 전월(5.4만 명) 대비 183%, 전년 대비 175% 급증, 이는 월간 기준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치 수준. 미 연방정부 셋다운 사태 장기화로 민간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가운데 전일 ADP 민간 고용 호조(10월 4.2만 명 vs 컨센서스 2.5만 명)와 달리 금번 챌린저 보고서 내 감원 규모가 엇갈린 방향성을 보이며 이 날 증시 하락 명분을 제공.

이와 더불어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에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 구체적으로, 시카고 연은(‘공식 데이터 부재로 선제 인하 결정은 신중해야 할 필요’), 클리블랜드 연은(‘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수준, 추가 금리 인하 반대’) 등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속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 자극을 낮추는 발언을 연이어 지속.

이러한 가운데 AI 기술주에 부여된 밸류에이션 논란도 현재 진행형. 특히, 최근 오픈 AI 임원은 자사의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언급. 이후 백악관 AI 정책 총괄 책임자는 “특정 AI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음. 이는 최근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및 AI 버블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술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 전반적으로, 현재 증시 여건을 감안시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며,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연방정부 셋다운 해소 여부, 10월 CPI(13일), 엔비디아 실적(19일) 등의 일정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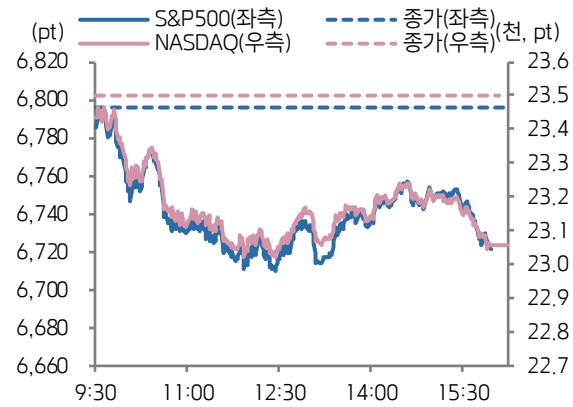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낙폭과대 인식 속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났으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실현성 매물 출회가 지속된 결과 상승폭 축소. 특히, 로봇 등 펀더멘털 대비 기대감으로 올랐던 테마주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코스닥은 900선 이탈(코스피 +0.55%, 코스닥 -0.41%)

금일 국내 증시도 미 증시에서의 AI 기술주 하락, 외국인 중심의 차익실현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승 탄력은 제한된 흐름이 전일에 이어 지속될 전망.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레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하며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9월~10월 국내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한 축인 AI발 모멘텀이 소강상태에 진입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 이러한 가운데 랠리의 한 축이었던 새 정부 정책 모멘텀은 11월에 재차 주목받을 수 있는 구간. 12월 2일까지의 처리 기한을 감안시, 11월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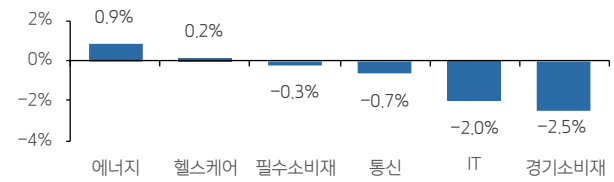
혜 관점에서 금융, 지주, 고배당 업종에 주목해볼만한 시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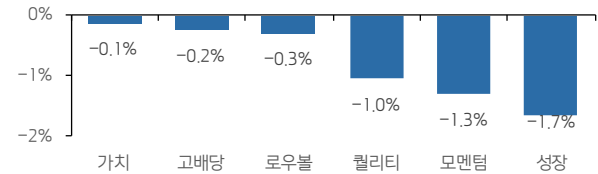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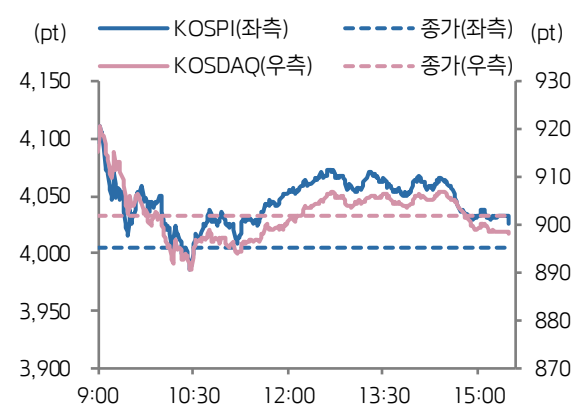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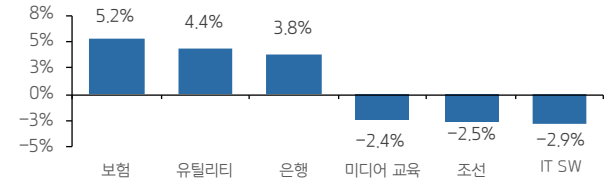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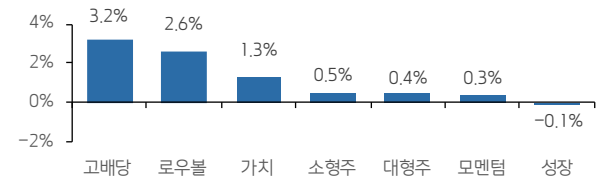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69.77	-0.14%	+8.11%	GM	68.84	+0.1%	+30.31%

마이크로소프트	497.10	-1.98%	+18.58%	일라이릴리	937.44	+1.26%	+22.16%
알파벳	284.75	+0.15%	+50.91%	월마트	101.68	+0.21%	+13.39%
메타	618.94	-2.67%	+5.96%	JP모건	313.42	+0.56%	+33.52%
아마존	243.04	-2.86%	+10.78%	엑손모빌	114.50	+0.72%	+9.39%
테슬라	445.91	-3.5%	+10.42%	세브론	152.94	+0.18%	+9.27%
엔비디아	188.08	-3.65%	+40.09%	제너럴일렉트릭	101.68	+0.2%	+13.4%
브로드컴	355.59	-0.94%	+54.47%	캐터필러	569.78	+0.11%	+59.44%
AMD	237.70	-7.27%	+96.79%	보잉	196.50	-0.57%	+11.02%
마이크론	238.33	+0.35%	+184%	넥스트에라	82.00	-0.2%	+17.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026.45	+0.55%	+67.8%	USD/KRW	1,449.30	+0.52%	-1.56%
코스피200	568.38	+0.53%	+78.84%	달러 지수	99.70	-0.51%	-8.1%
코스닥	898.17	-0.41%	+32.44%	EUR/USD	1.15	+0.47%	+11.51%
코스닥150	1,568.19	-0.1%	+38.8%	USD/CNH	7.12	-0.13%	-2.94%
S&P500	6,720.32	-1.12%	+14.26%	USD/JPY	153.07	-0.68%	-2.63%
NASDAQ	23,053.99	-1.9%	+19.38%	채권시장			
다우	46,912.30	-0.84%	+10.27%	국고채 3년	2.844	+7.7bp	+24.9bp
VIX	19.50	+8.27%	+12.39%	국고채 10년	3.212	+8.2bp	+34.1bp
러셀2000	2,418.82	-1.86%	+8.46%	미국 국채 2년	3.557	-7.2bp	-68.4bp
필라. 반도체	7,018.39	-2.39%	+40.93%	미국 국채 10년	4.083	-7.6bp	-48.6bp
다우 운송	15,956.62	-0.59%	+0.38%	미국 국채 30년	4.677	-6.1bp	-10.4bp
상해종합	4,007.76	+0.97%	+19.57%	독일 국채 10년	2.650	-2.3bp	+28.3bp
항생 H	9,355.97	+2.1%	+28.34%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83,311.01	-0.18%	+6.62%	WTI	59.43	-0.29%	-12.85%
유럽, ETFs				브렌트유	63.38	-0.22%	-15.09%
Eurostoxx50	5,611.18	-1.02%	+14.61%	금	3,991.00	-0.05%	+44.24%
MSCI 전세계 지수	997.89	+0.11%	+18.61%	은	47.95	-0.15%	+63.98%
MSCI DM 지수	4,356.69	+0.21%	+17.5%	구리	496.75	-0.37%	+23.37%
MSCI EM 지수	1,382.96	-0.75%	+28.59%	BDI	2,003.00	+2.3%	+100.9%
MSCI 한국 ETF	93.51	-3.22%	+83.75%	옥수수	428.75	-1.49%	-3.38%
디지털화폐				밀	536.00	-3.38%	-10.44%
비트코인	100,827.51	-2.73%	+7.59%	대두	1,108.00	-2.31%	+7.18%
이더리움	3,316.07	-3.66%	-0.91%	커피	379.05	-3.89%	+35.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